

제 39 호 ‘시험 참고지’ 마련하기

연필과 지우개만 허락되는 ‘전통적’ (closed book) 시험이 있는가 하면 수험생이 교과서, 참고서, 노트를 원하는대로 지참할 수 있는 ‘열린’ (open book) 시험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학습 내용을 달달 외워 아는 암기 능력은 필요없고, 정보를 선별하고 응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열린’ 시험을 원칙적으로 선호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루기 직전 수험생들에게 “교과서를 열고 노트를 열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라!”라는 설교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열린’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온갖 참고서를 다 지참해도 되니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라”하며 은근히 걱정하는 비관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참고서가 있으니 웬지 마음이 푸근하다”는 낙천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전통적’ 시험과 ‘열린’ 시험은 둘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 목표에 따라 선택하면 각 장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전통적’ 시험이라야 하겠지만, 학습한 지식을 얼마나 잘 응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은 ‘열린’ 시험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시험을 치루는 중에 참고서를 긴요하게 쓰는 학생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나 노트를 뒤적 뒤적거리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요란하여 옆에 앉은 학생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서가 허락된다고 하니 암기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내용마저 참고서에 의존하려는 버릇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린’ 시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서를 학생들이 원하는만큼 지참하지 말고, 학생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시험 참고지’를 한 두 장 정도로 준비하게 합니다. 몇 백 장이나 되는 교과서 내용을 한 두장으로 간략하게 축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슨 내용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도록 요약한 내용을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사실 학습 내용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정돈한 학생은 시험을 볼 당시 ‘시험 참고지’가 필요없게 됩니다. 결국 많은 학습 내용을 거르고 요약하고 정돈하는 일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셈이지요.

© 조벽, 1999